

5강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A. 회심을 중심으로 본 『고백록』

1권	하나님 곁에 있는 내 영혼.
2권-4권	타락의 과정
	- 소년에서 청년으로
	- 호기심에서 정욕으로
	- 정욕에서 세속적 욕망으로
5권-8권	돌아서다
9권	하나님께로 돌아선 신앙인의 기쁨과 평안

B.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멀어진 3가지 요소(애욕, 변론술, 마니교)

이제 나는 지나간 나의 추잡한 잘못들과 육체로 떨어졌던 내 영혼의 타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과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쓴 괴로움을 지니면서도 나의 추잡한 잘못들을 상기하옵니다. 거짓없는 달콤함, 복되고 안전한 달콤함이 되신 주님, 당신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소서. 나는 오직 한 분(一者)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고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외모는 시들었으니 당신이 보기에는 썩은 존재였으나 내 자신의 눈에는 좋게 보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II,i,1)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다. recordari = re(다시 한번) + cor(마음에) 떠올리다.

1. 애욕 amor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그곳은 가증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애욕의 냄비가 내 주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깊이 숨겨진 욕구불만에서 내가 그 욕구불만을 더 강하게 느끼지 못함을 스스로 미워했습니다. (III,i,1)

그러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때 밝은 우정의 길, 즉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우정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흙투성이인 육체의 정욕과 사춘기의 열정적인 상상력이 안개같이 일어나 나의 마음을 흐리게 했고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순수한 사랑이고 무엇이 추잡한 정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의 마음에서 복잡하게 엉키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고, 나의 젊음을 불결한 욕심의 낭떠러지로 이끌어가 치욕의 소용돌이로 던져버렸습니다. (II,ii,2)

오 하나님, 당신은 왜 그리 느리십니까? 당신은 그때 침묵을 지키시었고 나는 당신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거만한 낙담과 불안한 피곤함에 젖어 슬픔의 불모지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II,ii,2)

Concupiscence: con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cupid (‘욕망’을 의미하는 desiring) + escere (어떤 것이 시작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동사): 인간의 내적 욕망을 표현한 말.

- 어거스틴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후에 의미가 더 확장되어 자기애(self-love)를 버리지 못하는 원죄를 지닌 ‘인간의 죄 된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됨

2. 변론술

그때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고상한 학문'은 결국 법정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각을 나타내고자 원했는데 내가 교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맹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맹점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나는 이미 수사학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몹시 좋아 뽐내며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III,iii,6)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에 나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재주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IV,ii,2)

3. 마니교

내 마음이 지혜로의 사랑(philosophia)으로 불타고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크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그 이름, 당신의 아들, 내 구주되신 그 이름을 당신의 은총은 나의 어린 마음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과 함께 정성스럽게 먹게 하셨고 대단히 귀중하게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III,iv,8)

그러므로 나는 성서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으며, 처음은 나지막하여 쉬운 듯하나 더 나아갈수록 태산 같아 신비에 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성서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III,v,9)

오, 진리, 진리여, 그들(마니교도들)이 나에게 계속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책과 말로 당신의 이름을 약간 속삭여주었을 그때마저 내 영혼의 골수는 얼마나 당신을 (내적으로) 열망했었습니까? (III,vi,10)

방황했던 과거

나는 열아홉 살 때부터 스물여덟 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학예라고 부르는 학문의 이름으로 그랬고, 숨어서는 거짓된 종교의 이름하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나는 거만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미신적이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나는 헛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한편, 나의 공직생활에서는 헛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한 나머지 극장의 박수갈채를 얻고자 시 낭송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푸라기의 월계관을 추구한 무대 연기의 허망함이고, 절제 없는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 개인 생활에서는 이 모든 추잡한 행동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자 소위 성자 혹은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IV,xvi,28-31)

4.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나는 오직 한 분(一者)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ab uno te aversus in multa)로 떨어져서
산산조각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